

《대학》 — 진보의 동아시아적 의미 —

김기현_유교사상연구소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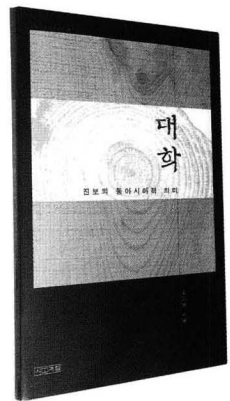
밤 열시까지 붙잡아 두던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대학생의 몸으로 완전히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 공부가 시작되었다는 자유로움에 들이쉬는 공기마저 신선하게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가족을 비롯하여 이분 저분들께 늘 빛만 지고 살아왔다.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라도 조금씩 빛을 갠야 하는 처지에 놓인 몸이기에, 이번에 낸 이 책도 내가 그동안 그런 식으로 세상에 진 빛을 일부 변제하는 의미를 갖는다.

거창하게 말해서 '큰 학문'을 한다는 사람들이나 '나랏일'을 보는 사람들이란 어느 정도는 운명에 의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세계에서 출세라는 것은 영광보다는 의무가 더 많은 것이기에 항상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일정한 관념이 요구되고 삶의 태도에서 일정한 수준이 요구된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전통 사회에서는 장차 큰 학문을 할 지식인 후보나 국사를 담당할 상부 계층의 후예들에게는 아예 보통의 교육과는 다른 교육 강령에 의거하여 따로 교육을 시켰다. 훗날 신유학이 등장하면서 그 교재로 굳어진 것이 《대학》인데, 《대학》의 지평 및 그 해석과 활용의 역사를 오늘의 현실에서 조망해 주는 것이 나의 소임이었다.

원문은 짧은 데 비해 함축하는 의미는 크고 깊은 《대학》의 지평을 현대의 관점에서 균형 잡아 서술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학계에서는 흔히 전공자들을 위한 논문 쓰기보다 일반 독자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글 쓰기의 어려움을 놓고 '쉽게 쓰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회자된다.

우선 기존의 글들 가운데서는 《대학》의 이념을 마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진학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학 현실과 연결하여 살펴본 예가 보이지 않는 점이 눈에 띄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작금의 우리나라 풍토에 대해 지금은 일반인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 더구나 재주가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 단지 '돈 때문에' 대학에 진학을 못 하고 많은 아쉬움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다는 점은 이 사회의 운용이 크게 비효율적임을 증명한다. 정작 현행 우리나라 대학의 원조인 서양의 대학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에도 수입국의 하나인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동아시아 사회가 근대화(Modernization, 현대화)의 풍랑에 휩쓸리는 사이에 근본적으로 '대학(큰 학문)'의 이념에서부터 혼란에 빠진 탓이다. 우선 전통 사회에서의 큰 학문의 이념은 무엇인지, 그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규명하여야 했다. 내가 이번에 이 책에서 중점을 두어 한 일이 이 작업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동아시아의 전통 사상이 낳은 고전들로부터 여전히 우리의 삶에 소중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세기 내내 연구자들이 종종걸음을 내달으며 시선을 자신의 발 주위에만 고정시키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동양의 고전이란 '현대적 삶에는



《대학》
(주)사계절출판사 |
260쪽 | 값 9,800원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고서古書', 아니면 '만고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는 신비한 성경聖經'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한문 원전을 읽어주는 훈장 선생은 이집트 고대문자 해독가처럼 전문가 집단이 되어 있고,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번역본 경전들은 그 경전의 열개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과 핵심 관념의 집중적인 규명에서 한계를 보여 고전의 세계가 독자의 마음에 쉽게 와 닿지 않는다.

현재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동아시아의 고전들은 이집트 문명의 고대 비문처럼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전문지식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의 앞길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가는 데 꼭 참조해야만 하는 인생의 등불이고 사회 현실의 조명등이다.

하지만 한문의 장벽은 너무도 버겁다. 그래서 그 고전의 역사를 조명해 주고 주요 관념 및 핵심 내용을 적절히 짚어주는 안내서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리라. 본디 부족함이 많은데다 이번 시리즈 기획의 이런 취지를 좀더 살리려 하다 보니 원고를 네 번은 고쳐 쓴 것으로 기억된다. 여기에 '대학大學'이라는 주제가 갖는 깊이를 생각해서라도 문명 차원의 조명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록 맛보기 차원일지라도 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각은 제시해 두었다.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근대 서구문명의 한계와 병폐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몇몇 전문가들에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최근의 인간복제 문제나 노화의 원인을 밝혀내어 종국적으로는 늙지 않고자 하는 과학연구 등의 문제만 해도 우리는 동양의 고전들로부터 훌륭한 조언을 들을 수 있다.

나의 책이 사실상 시리즈의 본격적인 출간을 알렸지만, 나로서는 이런 의미에서 뒤이은 대작들을 고대하고 있다. 卍

大學

